

국제앰네스티 2015 활동보고서

AMNESTY INTERNATIONAL ACTIVISM REPORT 2015



CONTENTS

2015 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1
ABOUT US	4

활동보고서 ACTIVISM REPORT

캠페인 CAMPAIGNS	
이슈캠페인	8
모금캠페인	16
인권교육 EDUCATION	
전략적 인권교육	20
시민교육	22
참여 PARTICIPATIONS	24
회원활동 MEMBER ACTIVITIES	26
거버넌스 GOVERNANCE	28
미디어활동 MEDIA WORK	
제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30
웹&소셜미디어	32
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36
앰네스티가 만난 사람들 AMNESTY PEOPLE	38

■ 국제엠네스티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700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활동원칙

-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인권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 개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을 지향합니다.
- 전세계 어디서나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 인권의 보편성과 인종, 성, 성적 지향, 종교, 민족, 정치적 견해, 국적 및 사회적인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 특정한 정부나 정치체제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이것은 엠네스티가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부,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종교로부터 독립적입니다.
- 활동 방향과 핵심 활동을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합니다

국제엠네스티는 1961년,
자유를 위해 건배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2명의 포르투갈 학생에 대한 뉴스를 보고
그들의 석방 운동을 시작한 영국 변호사
'피터 베넨슨'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타하는 것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 – 피터 베넨슨 Peter Benenson (국제엠네스티 창립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국제 사무국

나이로비	다카르	런던	마드리드
브뤼셀	베이루트	요하네스버그	제네바
캄팔라	파리	홍콩	

■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

가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나우루	뉴질랜드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멕시코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몽골	미국
미얀마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바티칸시국	방글라데시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산 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서사모아	서사하라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솔로몬 제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전 세계 **150**여 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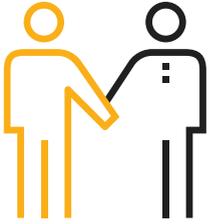
700만 회원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예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요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잠비아
조지아(그루지아)	중국	지부티	칠레	칠레
카메룬	카타르	캄보디아	코모로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로 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후주
홍콩				

ABOUT US



7명
이사회



45명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자



101명
운영회원



22명
사무처 직원

2015.12.31 기준

2015년, 1만 6천여 명의 회원과 함께 달려온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 활동의 중심은 '회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엠네스티를 지지하는 회원이 있기에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문가해자는 처벌받았고, 유산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심수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사형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난민과 강제퇴거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도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회원들은 국내외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을 통해
인권피해 상황에 처한 사람의 권리 보장을 외쳤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
인권활동가가 안전하게 활동 할 권리...
이러한 외침은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엠네스티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함께한 당신, 고맙습니다.
2016년도 특별한 변화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임원과 사무처 일동





부 공동 캠페인 결과 보고 기자회견



병역거부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연

2015
활동보고서



ACTIVISM REPORT

캠페인 CAMPAIGNS

이슈캠페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5월 13일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가해지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가하는 불필요한 징역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합니다. 2007년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09

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2008년 이후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였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결속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거듭 '적절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2015년 1월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과 함께 5월 13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3월 12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기획모임

5월 1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고서 기자회견

5월 16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앰네스티 수요극장 <어떤시선-얼음강> 상영

공동 단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108개국에서 8,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해 주었습니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법조인 및 학자 등을 만나 면밀히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지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마련을 위해 국내외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앰네스티 주요 극장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삶을 그린 <어떤시선-얼음강>을 상영하였고, 민용근 영화감독과 히로카 쇼지 조사관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화단체인 전쟁없는세상과 공동으로 5월 15일 세계 병역거

부자의 날을 맞이해 자전거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진은 대체복무제도 재정비를 위해 국방부에서 국회로 이어졌으며 당일 50여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월 9일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 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한국지부는 공개변론 즈음해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양심에 따른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요청했으며, 현재(2016년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였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성민 씨가 1년 5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15년 10월 26일 출소했습니다.

7월 9일



헌법재판소 병역법 공개변론 기자회견

10월 8일



고려대학교 인권축제 모다깃비 참여

10월 28일

중앙대학교 제8회 인권문화제 참여

12월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방부 기자회견

위험에 처한 사람들

전 세계 곳곳에 자신의 양심과 신념 때문에 삶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 캠페인은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보냅니다. 한국지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22개의 온라인액션을 진행하였고 서명, 팩스, 편지 등의 방법을 통해 1만여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인권침해에 대응하며 국제적 압력을 형성했습니다.

라이프 바다위 캠페인

2014년 5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는 사회와 정치, 종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로 채찍질 1,000대와 벌금 3억 원(100만 리얄), 10년간 여행금지, 미디어에 의견개진 금지 그리고 실형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채찍질 형은 일주일에 한 번 50대씩 20주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었고, 2015년 1월 9일 채찍질 1,000대 중 50대가 집행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반발했고, 이후 형 집행이 이유 없이 연기되고 있지만 언제든 채찍질형 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위한 온라인 탄원

활동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탄원팩스를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라이프 바다위가 형을 선고 받은 지 1년이 지난 5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라이프 바다위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날을 기점으로 매주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목요 1인 시위’는 20주간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인 9월 17일, 회원 및 지지자가 참여한 온라인탄원 2,043건과 회원 그룹이 광화문 거리에서 모아준 서명 2,638건 그리고 ‘목요 1인시위’에 참여한 35명의 얼굴로 제작된 현수막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목요1인시위 참여자 현수막



목요1인시위 참가자들



목요1인시위 탄원서 및 서명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좌)와 노르웨이지부(우) 회원들이 진행하는 라이프 바다위 캠페인



‘2015 Write for Rights : 소박한 영웅편지’ 캠페인

‘Write for Rights’는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수많은 양심수와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원 캠페인입니다. 한국지부는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소박한 영웅이 되어달라는 뜻으로 ‘2015 Write for Rights : 소박한 영웅편지’ 캠페인을 진행했고,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5명에 대한 탄원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한국지부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고 유쾌하게 편지쓰기 활동의 의미를 전하고자 ‘소박한 영웅 페이퍼토이’와, 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연말 카드 한 장 그리고 43년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만평가 주나르(Zunar)에게 보낼 카드 한 장을 제작해 후원 참여자에게 보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소박한 영웅 페이퍼토이’를 통해 많은 회원 및 지지자가 재미있게 편지쓰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키트 A]
내가 진짜 영웅



[키트 B]
나는 편지쓰는 영웅



[2015 Write for Rights : 소박한 영웅편지] 캠페인 사례

부르키나파소



신부가 되기엔 너무 어린 소녀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의 소녀 마리아(가명)는 11살 되던 해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결혼은 어린 소녀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에 소녀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510명이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유산으로 살인자가 되어야 했던 엄마

2008년 만삭의 몸으로 일하다가 유산으로 둘째 아이를 잃은 테오도라(Teodora)는 살인죄로 30년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유산은 죄가 아닙니다. 테오도라가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579명이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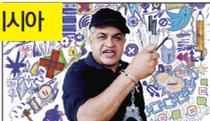
미얀마



대학검열에 반대하다 체포된 대학생

미얀마의 한 대학생단체 대표인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대학을 검열하는 새로운 교육법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에 앞장섰다 체포되어 최소 9년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표 표가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522명이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43년형 위기의 만평가

말레이시아의 유명 만평가 주나르(Zunar)는 정부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를 눈감아주는 사법부를 재치 있게 풍자한 작품을 그려서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43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주나르가 안전하고 당당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452명이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시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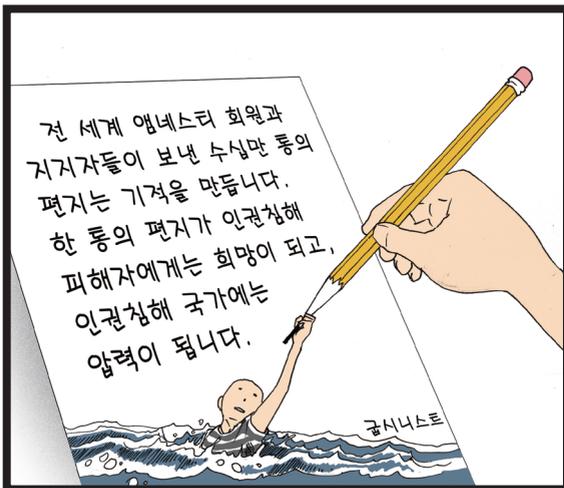
시리아의 6남매 한 순간에 사라지다

2013년 3월, 시리아 정부군이 라니아 알라바시(Rania Alabassi)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후 라니아와 남편은 물론, 16세 첫째 딸부터 4살된 여섯째 막내까지 6남매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라니아 가족이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585명이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편지쓰기’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해온
인권캠페인 활동의 중심입니다.

앰네스티는 평범한 시민들의 편지 한 통, 한 통을 모아
강력한 국제적 압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변화시켜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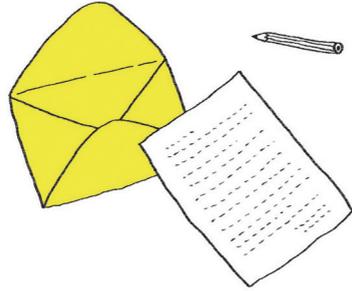
2015년에는 웹툰 작가 ‘굽시니스트’와 ‘올드독’이
함께했습니다.





WRITE FOR RIGHTS

2003년 시작된 이 캠페인으로 현재
전세계 200개국에서 1,500만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통의 편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편지는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을 풀려나게 하고,
인권론 침해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외면당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게 계속 싸울 용기를 주었습니다.



'HERO'

한통의 편지도
누군가의 소중한 영웅이 되어주세요.

AMNESTY. OR. KR
X
OLDDOGB K R

국제위기대응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내전이 4년에 접어들면서 400만여 명이 전쟁을 피해 고향과 자신의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중 아주 소수만 제3국에 재정착을 지원받았고, 많은 사람이 인근 국가에 마련된 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OpenToSyria 캠페인을 통해 부유국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OpenToSyria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로힝야 난민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난민선을 타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가던 중 끔찍한 사고를 겪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이 육지에 도착하더라도 추방되거나 범죄자 취급받으며 또 다른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부들은 연꽃 사진액션, 해당 정부 로비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정부들이 난민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힝야 난민을 위한 연꽃액션

최루탄 수출 및 아덱스 대응활동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지난 1월 한국산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한국지부는 2015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 2015.10.19~10.25) 저항행동에 참여해, 무기 박람회 문제점과 통제되지 않는 무기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2015 ADEX 참여

■ 집회·시위에서 경찰력 사용

세월호 참사 1년을 기억하며 지난 4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유례없는 세월호 추모집회와 행진에 모인 시민들을 상대로 캡사이신 스프레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시민들에게 사용했습니다.

11월에는 경찰이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물대포를

사용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현재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경찰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엄격히 국제기준을 준수할 것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력의 책무성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안부' 정의회복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11월 30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 정부간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생존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에 한국지부는 긴급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이 생존자들을 배제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소녀상



캠페인 CAMPAIGNS

모금캠페인

인권의 지지자를 찾아서

거리캠페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더 많은 인권지지자를 만나기 위해 거리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인권이슈가 있었지만 시리아 난민문제, '위안부' 정의회복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한국지부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지지자를 찾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국경을 초월하는 인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고, 새로운 지지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9월, 터키 해안에서 발견된 '쿠르디' 사진 한 장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고, 난민이 처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엠네스티 캠페이너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알리지 않고 3D 고글을 통해 '알레포' 지역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난민들의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여 시민들이 난민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했고, 국제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위안부' 정의 회복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20세기

에 일어난 중대한 전쟁범죄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성노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쟁과 인권의 문제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렸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양국 정부의 줄속협약에 대해 시민들에게 이번 협상에서 빠진 핵심 사항들을 알리고,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인권친화교실'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인권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거리모금캠페인



시리아 상황 3D 체험





'춣불더하기 캠페인' 아이디어 회의

■ 회원배가 캠페인

한국지부는 회원이 주변 지인에게 앰네스티를 소개하고 활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춣불더하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 진행에 앞서 보다 참신한 방법으로 앰네스티를 알리기 위해 [춣불+IDEA=변화, 당신의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아이디어 회

의를 진행하였고,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춣불더하기 캠페인'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춣불더하기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께는 특별제작된 앰네스티 '보틀'과 '캘린더'를 보냈습니다.



캠페인 홍보물



앰네스티 보틀



앰네스티 캘린더

🔊 어둠 속 또 하나의 춣불을 밝혔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이미 앰네스티 활동의 큰 지지자세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회원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셨는데 마침 '춣불더하기 캠페인'이 진행 중이길래 망설임 없이 엄마에게 참여하자고 제안했어요. 역시나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앰네스티에서 선물로 보내준 '앰네스티 보틀'도 매일 가지고 다니시면서 잘 사용하고 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엄마랑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보고 싶어요!”



유청우 회원 인터뷰

캠페인 CAMPAIGNS

모금캠페인

인권의 가치확산을 위해서

■ <노란연필 : 변화를쓰다> 프로젝트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인권활동 참여방법으로 <노란연필 : 변화를쓰다>(이하 노란연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인권활동 참여가 생소한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 대형 노란연필을 세우고 한 달간의 캠페인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¹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도전했습니다. 총 334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참여해주었고, 946만원의 후원금이 모여 8월 1일 2.5m 크기의 대형 노란연필이 세워졌습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 도서관에 설치된 대형 노란연필을 만난 시민 누구나 노란연필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사진찍기, 메시지 남기기, 편지쓰기 등 한번의 터치 만으로도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평

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노란연필은 1천 대의 채찍질 형 위기에 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와 시위현장을 취재하다 재판도 없이 수년째 구금된 이집트 사진기자 '샤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9월에는 고려대, 중앙대 등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촉구서명을 모았고, 10월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박래군 활동가는 석방되었습니다.



홍대 프리마켓에서 진행된 노란연필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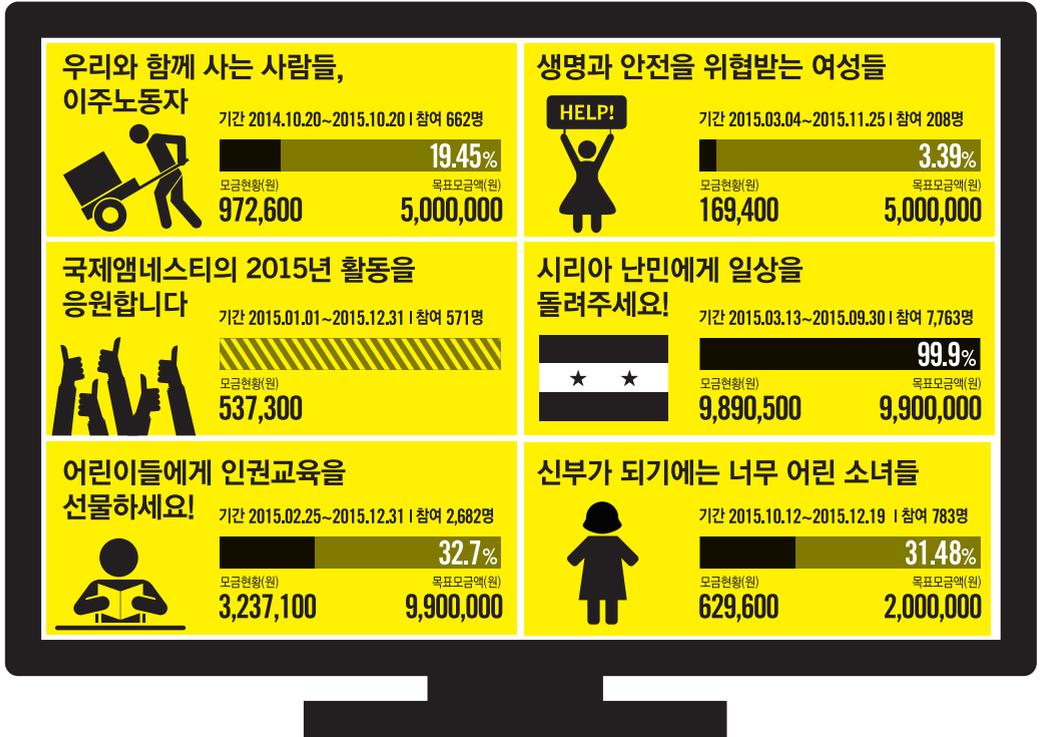
시청 서울도서관 앞에서 진행된 노란연필 캠페인

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국제앰네스티는 후원에 따른 보상(리워드)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모금 프로젝트

해피빈 / 인권을 지키는 작은 콩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총 6개의 모금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약 1만 2천여 명의 참여로 15,436,500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해피빈 댓글 중

“전쟁의 아픔이 없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EII**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기를...” Woo**님

“시리아 난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꼭, 안정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다미**님

“잘못된 법과 제도에 얽매어서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힘을 줍니다. 삶의 희망을 가지세요^^~^^” 자**님

“콩이 하나밖에 없어서... 카페활동 열심히 하고 콩 모아서 다시 올게요. 엘살바도르 여성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오즈**님

2016년에는 해피빈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세계의 인권이슈를 전하고,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인권교육 EDUCATION

전략적 인권교육

인권친화교실

“ 교과서를 통한 교육은 인권보호 활동이 마틴 루서 킹이나 테레사 수녀 등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통한 교육은 인권이 ‘나도 겪을 수 있는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 인권친화교실 참여교사

국제엠네스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인권친화교실 프로젝트(이하 인권친화교실)를 시행했습니다. 인권친화교실은 국제엠네스티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젝트인 ‘인권친화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을 자력화하고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통합하고자 시작된 활동입니다.

한국지부는 한국에 ‘인권친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도입하기에 앞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바탕으로 한 학교 단위의 인권친화교실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학교 단위로 접근했다가 자칫 인권교육이 교사와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아닌, 수직적인 행정 업무가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친화교실은 3월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국 145개 학교 210명 이상의 교사들과 6,814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인권친화교실 참여학교에는 한 해 동안 총 4회에 걸쳐 단계적인 교육자료를 배포했으며, 정기 뉴스레터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자료와 교육사례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4회에 걸쳐 배포된 교육자료와 교안은 인권교육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정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에서 인권이 회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에 발행된 첫 번째 자료인 ‘우리 반, 인권친화교실’은 나와 인권의 관계를 알아보고, 우리 반의 인권 약속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5월에는 ‘차이와 차별’을 통해 생활 속 다양한

차별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의식을 기르며 인권이 존중받는 마을을 만들어보았고, 9월에는 보드게임 형태의 교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을 면면히 탐구하는 ‘인권여행’을 진행했습니다. 11월에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활동을 경험하고자, 시리아 정부에 직접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2015년 한국지부는 교육전문성향상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난이도 조정에 집중했습니다. 2명의 현직 교사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교재의 기획과 평가, 난이도 조정 등에 힘쓰며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에 위치한 5개의 모니터링 학교에는 방문 교육을 통해 배포된 교육자료의 학년별, 지역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피드백을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2년 동안 모두 500여 명의 교사들과 15,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인권친화교실을 통해 인권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한국지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와 교안을 통해 교사와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인권을 경험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권교육은 평등·존중·차별반대·참여의 가치를 알리고, 평화롭고 공정한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우리 삶과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의 변화가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곧 전 세계 인권 문화 형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광주 유촌초등학교 인권친화교실 수업모습



✉ 구미 형곡초등학교에서 온 편지

“졸업을 앞두고 그간 모은 후원금 중 25만원을 국제엠네스티에 전달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단 1원도 그냥 얻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는 우리들의 시간, 애정, 고민, 기쁨, 열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의 열 세 살 한 해가 담긴 돈이지요.

모든 생명이 존중 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들의 후원금을 사용해주세요!”



2015 형곡초등학교 6학년 4반
최환미 외 29명, 담임교사 이유미

인권교육 EDUCATION

시민교육

■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

캠페인을 직접 기획해보고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인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 2기가 1기 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 주제를 심화된 과정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인권에 열정을 가진 20여 명의 참가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한국지부 사무국에 모였습니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 차별과 차이에 대한 활동 및 강의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쉽게도 1박2일 예정된 워크숍 및 심화과정 교육은 메르스 사태로 취소되었지만, 각각 난

민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팀을 구성해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난민 팀은 '모든 것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난민은 누구인가'라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직접 난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 난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표현의 자유 팀은 몇 번의 논의 끝에 국가의 대량 감시를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 난민,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 2기는 저에게 회원으로서 그리고 활동가로서, 앰네스티 안에서 정체성과 목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활동을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본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몇몇 분들과 새로운 앰네스티 회원그룹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함께 걷는 사람들을 만나 참 따뜻합니다. ”

캠페이너 양성과정 2기 참석자 김주원



방문교육

2015년 단체 및 학교 등 6곳에서 방문교육을 했습니다. 5월에는 부천에 있는 소명여고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차이와 차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더불어 아이쿱생협 지역회원, 재현고 동아리, 백마중학교 등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인권교육 수업모습

인권입문과정

총 5강으로 진행된 <2015인권입문과정>은 11월 5일~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주제	강사
1강. 인권의 달성을 위한 새로운 생각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2강.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병역거부	임재성 평화연구자
3강. 디지털시대의 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4강. 장애와 인권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센터장
5강. 난민인권 그리고 나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인권입문과정 강의

특별강좌

사회적으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이슈를 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별강좌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2월, <인권심화과정>에서 '국제분쟁이해하기'를 주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습, IS, 보코하람 등 끊임없는 중동 지역의 분쟁과 테러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10월, <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를 통해 인종, 젠더, 국제규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강의

참여 PARTICIPATION

와우어린이북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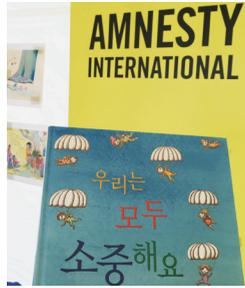
가족의 달 5월, 국제앰네스티는 서울월드컵 북측광장에서 진행된 제3회 와우어린이북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라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인권동화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를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인권이 나와 먼 주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어려울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 이해하였으며, 한국지부에서 준비한 어린이용 예코백에 자기만의 느낌을 담은 예쁜 그림을 그리며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예코백에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책



워크숍 진행 모습

퀴어퍼레이드

국제앰네스티는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제16회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해 많은 시민과 지지자 그리고 회원분들을 만나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진행 중이던 온라인 액션 중 파트너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한 그리스의 코스타스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코스타스를 위한 연대의 메시지를 모아 전달했습니다.



퀴어퍼레이드 참여자들





■ 앰네스티 수요극장

영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영화 속에 숨겨진 인권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보고자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필름포럼과 함께 '앰네스티 수요극장'을 진행했습니다. 3월~10월까지 총 7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200여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함께 했습니다.

- 3월 4일 <이다>
- 4월 1일 <뷰티풀라이>
- 5월 13일 <얼음강>-히로카쇼지 조사관
민용근 감독님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 6월 3일 <트래쉬>
- 8월 14일 <소수의견> - (*이번만 금요일극장)
배우 김익성, 김옥빈, 프로듀서 김유평님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 9월 3일 <셀마>
- 10월 7일 <앙: 단팔 인생 이야기>

■ 2015 Write for Rights : 레터나잇 '소박한 영웅들의 모임'

1년에 단 하루 열리는 레터나잇이 12월 10일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소박한 영웅들의 모임'이란 주제로 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120여 명의 회원 및 지지자들은 '2015 Write for Rights' 캠페인 사례자로 선정된 5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편지쓰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번 레터나잇에서는

시리아 청년 '압둘와합'씨가 들려주는 가슴 먹먹한 현장 이야기 그리고 앰네스티 회원으로 인연을 맺게 된 아이리쉬 포크 밴드 '바드'의 공연으로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대 메시지와 편지 쓰는 모습



압둘와합



바드의 공연



회원활동 MEMBER ACTIVITIES

새내기모임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단체의 비전과 캠페인 활동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 회원모임입니다. 2015년에는 <노란연필: 변화를 쓰다> 프로젝트 참여하기, 인권여행패키지 체험하기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탄원편지 작성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앰네스티 활동에 직접 참여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35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함께했습니다.

새내기모임	주 제
4월	앰네스티사의 특별한 시작
7월	앰네스티와 함께하는 쿨~~한 7월 새내기 모임
10월	따뜻한 앰네스티 한 잔 어떠세요?

※ 2016년에도 새로운 회원모임으로 찾아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내기모임 단체사진



김선우 회원 인터뷰

“후원에 대한 감사인사와 후원금 증액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열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죠. 새내기모임 공지가 있길래 가봐야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오랜 기간 후원했지만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그렇게 딸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딸아이가 재미있어해 더 의미가 있었어요. 저에겐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준 모임이었어요.”

그룹

국제앰네스티 ‘그룹’은 회원들의 자치활동 조직으로, 앰네스티 회원이면 누구나 그룹을 결성할 수 있으며 캠페인, 학습, 편지쓰기 등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권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룹모임 공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2그룹

인권을 위한 소중한 마음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다

‘야간노동’,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으며, 5월, 9월 11월에는 ‘라이프 바다위’ 구명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55그룹

인권의 민들레 흙씨를 퍼뜨리다

2015년은 ‘표현의 자유’를 키워드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또한 특별게스트를 초청하여 ‘국가보안법’과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모임 ‘봄’

사람과 사람을 돌아보며 인권의 봄을 꿈꾸다

2015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의의와 배경, 평화 운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철학과 인권 등을 주제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6개월 간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 정규 그룹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이프 바다위’ 구명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그룹원들

운영회원모임

6월 모임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정기적인 모임이 진행되었고, 국제앰네스티의 사업 및 캠페인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의 역할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인권상황 (w. 동아시아지역 사무소 조사국장 Roseann Rife)	국제대의원총회 (ICM,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관련 논의	국제대의원 총회 (ICM) 보고회	국제앰네스티 현황 (State of the movement) 논의	2016년 사업방향 논의	북한인권상황과 국제사회에서의 대응 (w. 김상현 회원)	레터나잇 참여



운영회원



운영회원 ICM 보고회

운영회원이란?

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하며 앰네스티의 의사결정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연회비는 매 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운영회원이 직접 차기 년도의 연회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운영회원증은 매년 발행되며 여러분이 앰네스티의 운영회원 한 사람으로써 인권보호에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거버넌스 GOVERNANCE

국제엠네스티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며, 엠네스티의 활동과 운영은 회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엠네스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2015 정기총회 개최

3월 21일 2015 정기총회가 서울유스호스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 활동을 보고하고, 2015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안건의결과 임원선출, 모듬활동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법인회원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법인회원'과 같이 법인체 회원과 그 명칭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지부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원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법인회원을 '운영회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지부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운영회원'과 정기적인 재정적 기여를 하는 '후원회원'이 함께합니다.

또한, 2013년 정관개정 시 교차선출제를 도입하여 이후 매해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총회에서는 4인(박명희, 연제현, 이윤중, 강양석)의 이사가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2015 정기총회 단체사진



22기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

- 이사장 : 전경욱
- 부이사장 : 김규환
- 이사 : 박명희, 박채원, 연제현, 이윤중, 강양석
- 감사 : 진영종

2015년 총 8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부의 사업점검과 예산점검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지부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5가지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5년 이사회 활동계획의 목표로는 한국지부 중장기 전략수립, 거버넌스(이사회) 역량강화, 모금확대 기여, 국제운동 및 정책참여 활성화, 회원참여 활성화가 있었으며, 이는 이사담임제로 목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2015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2015 국제대의원총회(ICM,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2015 국제대의원총회가 2015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각 지부 5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국제엠네스티의 향후 4년의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2016-2019 4년 전략목표에 대한 승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엠네스티 활동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의와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엠네스티가 더 건강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방안을 모색하고, 엠네스티를 이끌어가는 국제이사회를 선출하였습니다. 한국지부에서는 전경옥 이사장과 김희진 사무처장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2015 국제대의원총회



2015 국제대의원총회 단체사진

거버넌스 Q & A

Q 정기총회란?

A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운영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Q 정기총회에 누가 참가할 수 있나요? 운영회원!

A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회원으로서는 연회비를 내시면 정기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이란 한국지부의 활동 방향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한국지부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Q 이사회란?

A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지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입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회원들은 총회에서 이사회를 직접 선출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5인~9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Q 국제대의원총회란?

A 국제대의원총회는 국제엠네스티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국제대의원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5~7일간 약 500여 명의 각 지부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국제대의원총회는 국제엠네스티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의결기구입니다.



미디어활동 MEDIA WORK

제18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보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언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 이강현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중

제18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에는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신문과 주간지 등 인쇄매체는 물론 통신사와 온라인매체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모두 57편이 응모했습니다. 출품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의 역사가 20여년 가까이 되면서 자리를 잡은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매년 인권의 시각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은 올해 7팀에게 돌아갔고, MBC '무한도전'팀의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이 특별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마이뉴스-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는 지난해 국민적 분노를 샀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최초 제보자를 비롯해 포스코와 삼성 등 대기업 내부고발자들을 심도 있게 취재해 내부고발의 전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당하는 억압과 핍박, 따돌림과 해고, 복직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예심은 물론 본심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9차례의 기획시리즈가 보도되는 동안 정부가 부패신고자 상금을 2배로 인상하고, 내부고발자 누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부고발자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KBS-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는 태국에서부터 미얀마, 중국 윈난성까지 버마 전선 3개국을 취재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명부와 그들이 낳은 아동 포로 명부를 최초로 발굴해 보도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미얀마에서 포로로 잡히면서 국제사회에 조선인 위안부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을 토대로 연합군 포로 심문 기록과 일본군 군속 명부에서 위안부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명단, 제 3

국인 태국 군부 공문서에서 발견된 총 492명의 조선인 위안부 명부 등을 밝혀냈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집단 학살설 등 그간 제기됐던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추적 보도한 점도 높이 평가됐습니다.

'한겨레21-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은 그 동안 외면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끈기 있게 보도한 기획물입니다. 우리의 밥상을 차리는데 농축산업,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이 없다면, '신토불이 식재료로 차린 안전한 밥상'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도해 충격을 줬습니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이끌어 내며 인권이 보장된 밥상을 차리기 위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SBS 8시뉴스-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 행위'는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돼서도 다른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군 당국이 실제로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주CBS-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은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였지만 회사 측이 산업재해를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다뤘습니다. 단순 사



제18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수상자와 심사위원

고로 문힐 뻔한 사건을 청주CBS가 재조명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많은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고,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등 산업재해 관련 은폐 비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습니다. JTBC역시 청주 지게차 사고 CCTV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지만, 최초 보도를 한 청주CBS 취재팀에 수상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프레시안-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는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과거 ‘합동신문센터’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감금되어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고발했습니다. 1970년대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김관섭 씨부터 2000년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유우성 씨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으며, 남북 대치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10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을 소개하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적 폭력을 고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겨레-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의에 의해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는 것으로 판단됐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탈북 계획이 없던 김련희 씨가 탈북 브로커의 유사 인신매매

로 인해 남한에 입국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된 사연을 전하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강제로 남한국적을 부여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이후 CNN, BBC 등 다수의 해외 언론에서 다루지면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MBC ‘무한도전’팀이 제작한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강제 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하시마섬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모금을 통해 다카시마 공양탑으로 가는 길이 재정비되는 등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면서 일제강점기 역사의 일부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과제임을 보여주면서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18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패



미디어활동 MEDIA WORK

웹&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방문 현황

- 경찰력 사용 : 4, 5월에는 세월호 1주기 시위와 그 진압에 따른 긴급논평, 11월에는 민중총궐기 시위진압에 따른 긴급논평 등 '경찰력'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웹사이트 트래픽이 증가하였다.
- 난민 : 9, 10월에는 시리아 난민 아이 쿠르디에 대한 보도로 인해 '난민'관련 이슈가 주목받았다.
- 위안부 : 12월에는 한국, 일본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긴급논평으로 트래픽이 증가하였다.

총 방문자수



2014년 250,103명

-15.79%

2015년 210,612명

총 페이지뷰 수



2014년 782,272

-16.54%

2015년 652,992

총 사용자수



2014년 175,239명

-16.74%

2015년 145,901명

평균 머문 시간



2014년 0:02:30

-1.59%

2015년 0:02:28

방문당 페이지뷰



2014년 3.13

-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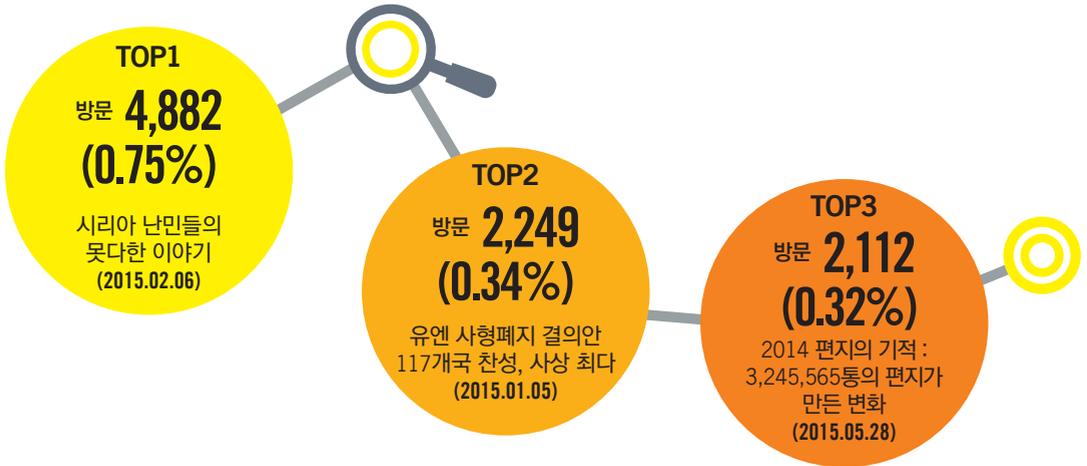
2015년 3.10

총 방문자수는 2014년에 비해 4만건(15.79%)정도 하락하여 210,61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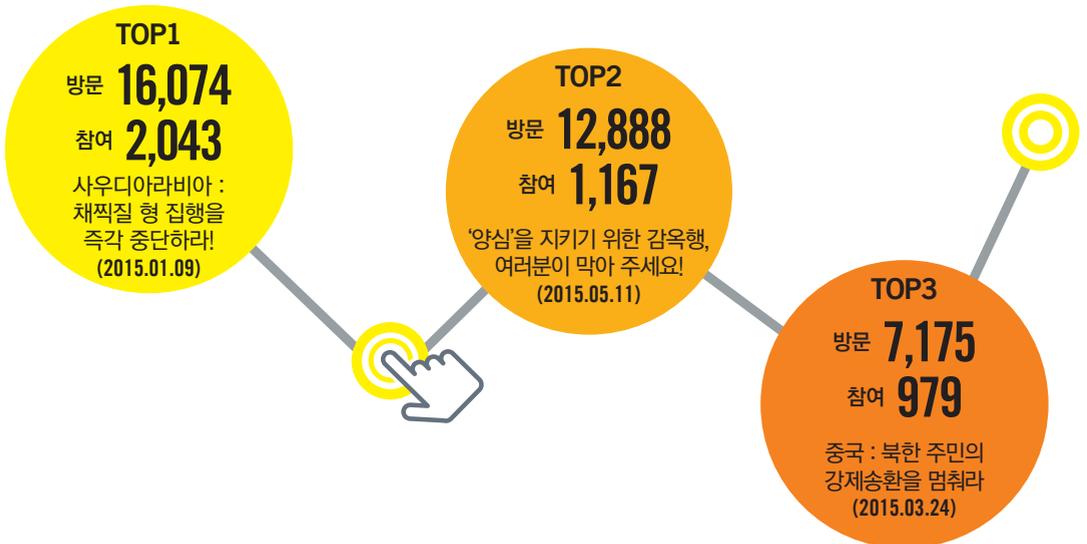
페이지뷰, 사용자 등 웹사이트 방문수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인기 콘텐츠

2015년 가장 많이 본 국제인권뉴스 TOP 3



2015년 가장 많이 참여한 온라인 액션 TO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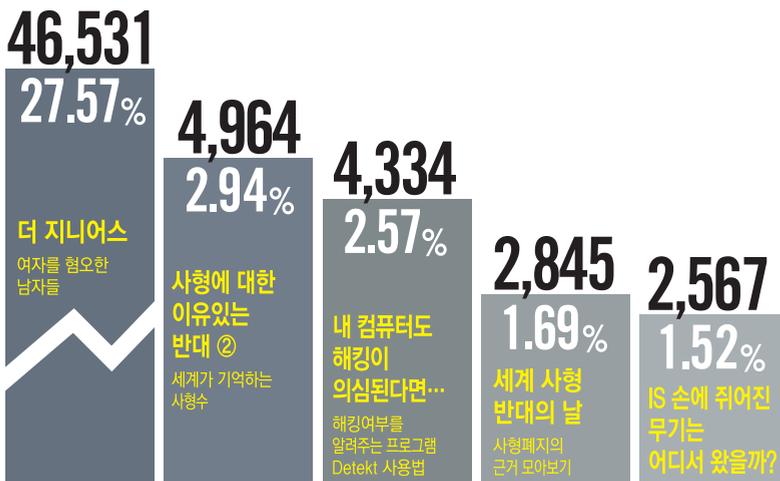


인기 콘텐츠

✉ 2015년 이메일 뉴스레터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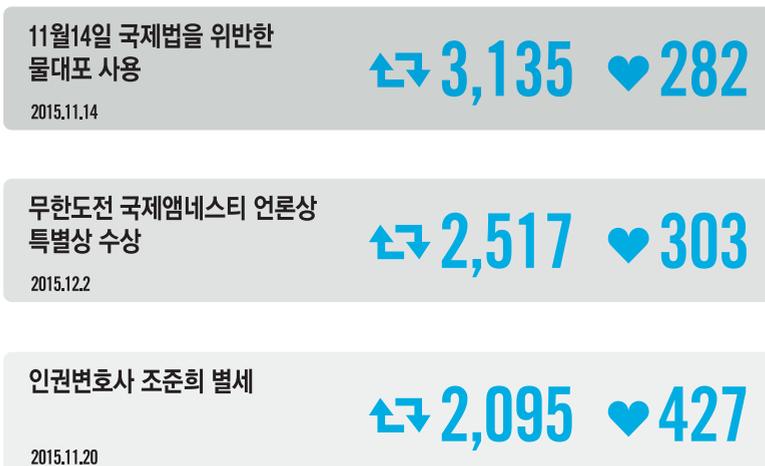
BLOG 2015년 인기 콘텐츠 상위 5



페이스북 인기 포스팅 상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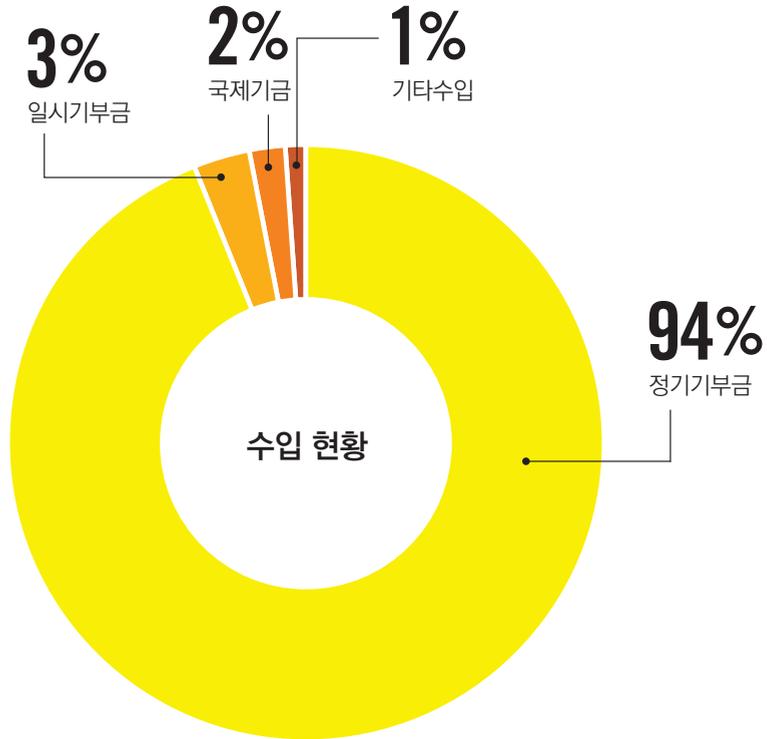


2015년 인기 트윗 상위 3



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수입 현황



2015.01.01-201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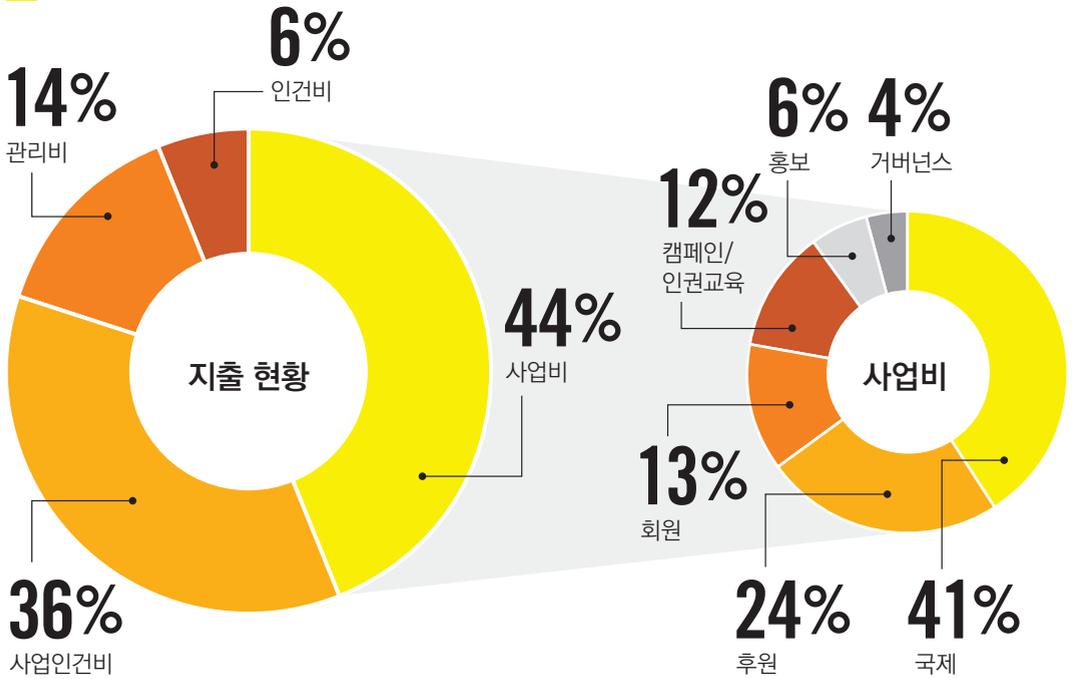
(단위 : 원)

관	항	내용	예산	수지결산	(%)	예실대비(%)
사업수입	회원회비	운영회원 연회비	2,000,000	4,040,000	0%	202%
	정기기부금	회원의 정기후원금	1,300,000,000	1,258,639,215	94%	97%
	일시기부금	회원 / 비회원의 자발적인 후원금	100,000,000	43,248,920	3%	43%
	국제기금	국제지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18,000,000	18,000,000	2%	100%
	행사수입	지부 행사 참가비	5,400,000	3,401,000	0%	63%
사업외수입	기타수입	이자수익 등	15,000,000	14,850,064	1%	99%
합 계			1,440,400,000	1,342,179,199	100%	93%

* 예실대비 수입지출현황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외부감사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운영성과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재정보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출 현황



2015.01.01-2015.12.31

(단위 : 원)

관	항목	목적별 사업	내용	예산	수지결산	(%)	예실대비(%)
운영비	인건비		지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급여, 퇴직급여, 4대보험)	100,381,389	89,656,258	6%	89%
	관리비		지부 사무실 운영비	212,443,450	211,775,124	14%	100%
사업비	인건비		사업 진행을 위한 인건비 (급여, 퇴직급여, 4대보험)	599,171,093	528,268,795	36%	88%
	캠페인 / 인권교육		인권상황 개선, 인권친화 교실 등 캠페인 사업비	98,415,000	78,002,879	5%	79%
	후원		각종 모금 행사 기획 및 회원모집 캠페인 사업비	208,160,000	149,787,259	10%	72%
	홍보		기자회견, 언론상 등 홍보행사 관련 사업비	66,775,160	38,514,729	3%	58%
	회원		회원행사, 소식지 등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03,665,700	81,915,850	6%	79%
	거버넌스		총회, 이사회 등 지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사업비	33,619,000	26,507,736	2%	79%
사업외비용	국제		국제적 활동을 위한 지부의 기여금	263,870,917	263,870,917	18%	100%
	기타비용		잡손실 등	40,600,000	3,729,933	0%	9%
합 계				1,727,101,709	1,472,029,480	100%	85%

AMNESTY PEOPLE



김혜원 _ 사형수 교화원

“흉악범들도 국민이기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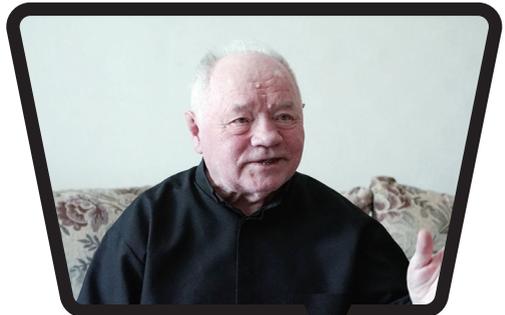
김의성 _ 배우

“인권은 ‘안전’이라 생각해요. 최악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치라고 할까요? 어느 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가는 사회적 인권수준이 되겠죠”



김선우 _ 화가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하는 삶이기에 인정 받으려는 노력보단 인정을 해주는 노력이 더 중요해요. 서로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배영근 _ 신부

“잘 했던 일, 남을 도왔던 일은 다 잊어버린 대신, 잘못했던 일은 늘 기억하고 있어요. 잘못된 일은 늘 상기하면서 나중에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아람 _작가

“국가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모였을 때 공감대를 얻어 제도적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유청우 _대학생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막상 도전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점이 훨씬 많았어요”



나경희 _교사

“아이들은 편지쓰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했고 엠네스티를 통해 결과를 보여줬어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미유 _가수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보태져서 편지가 되고, 그것에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모든 행위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요”

2016년에 만들어 낼 특별한 변화에 함께해주세요!

앰네스티 활동 응원하기!

하나, 후원금 증액하기

매월 내고 있는 후원금을 증액해보세요!

둘, 기념기부(일시) 하기

나의 기념일에 후원하기

셋, 주변인에게 앰네스티 소개하기

더 많은 인권의 촛불이 켜지도록 앰네스티를 알려주세요!



발행일 2016년 3월 5일

발행인 전경옥

발행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사이트 amnesty.or.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전화 02 730 4755

디자인 디자인생선가게 02 3673 2220

KakaoTalk

Y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친구추가하는 방법



카카오톡을 열어준다!



상단 [친구찾기] 메뉴를 누른다!



검색창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검색한 뒤 친구추가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친구추가 성공!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



국제앰네스티 2015 활동보고서
AMNESTY INTERNATIONAL ACTIVISM REPORT 2015